

해양바이오 산업 도약 이끄는 기업지원센터 문 연다

- 9월 22일(월)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관, 기업 성장 전 주기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9월 22일(월)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내에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이하 산업화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바이오 소재, 신약 개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선제적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생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全) 과정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3개 권역에 6개의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구축해 왔으며, 그 중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가장 먼저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산업화지원센터는 연면적 6,183㎡의 규모로 본관동과 생산동 2개동으로 조성되었으며,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은 해양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품질 검증, 나아가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화지원센터는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전국 단위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양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산업화지원센터를 통해 해양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서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인자 (044-200-5670)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강종욱 (044-200-5673)



참고 1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전경



참고 2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요

□ 추진 배경

- 해양바이오 기업의 약 30%가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 업체로 연구개발 자금, 전문인력, 연구장비 등 산업화 촉진 인프라 부족
- 이에 따라,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인프라, 시험인증 지원 및 마케팅 등 산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구축 필요

□ 사업 개요

- (목적) 장비 공동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 국내 영세 해양바이오 기업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사업비) '20~'25 / 총 347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수행자) 충청남도 서천군
- (위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 (사업규모) 2개동(건축면적 6,183㎡)
- (주요기능) 교육, 기술이전, 컨설팅 등 해양바이오 기업 사업화 지원
 - (인프라) 해양바이오 소재의 시험분석 및 인증 등을 위한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입주 공간 제공 등
 - (인력·네트워크)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기업·학교·연구기관 간 공동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 해양바이오 기업의 기술 및 특허 인증, 홍보·마케팅 지원

« 위치도 및 사진 »



< 위치도(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



< 조감도 >